

안전돈육 생산만이 살길이다



윤 주 성 부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최근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수입재개 등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계는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급률 80%를 유지해왔던 국내 돼지고기 시장마저도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 돼지고가 지난해 20만톤이 수입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람하는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 양돈농가들의 살 길입니다.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 관심 증대

최근 소비자들이 웰빙을 선호하면서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안전성 문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이뤄졌으나 뱀조각이 발견되어 국내 유통시장 진입에 실패한 사례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축산물은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은 국산을 먹겠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강한 편이지만 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항생제 사용관련한 지속적인 언론의 부각과 수익창출을 위한 식당, 유통업계 등의 수입육 취급량의 증가는 우리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

“안전돈육 생산만이 살 길이다”

적인 돼지고기 생산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산 돈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첫째**로 항생제 사용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얼마전 축산농가가 질병에 걸린 돼지를 치료하기 위해 휴약기간 준수없이 마구잡이로 항생제를 투약하고 이런 돼지가 무분별하게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그동안 양돈자조금 등을 이용한 양돈산업 이미지 제고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기에 우리 양돈농가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질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국산 돼지고기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입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으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냉장육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고급육 홍보 등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 브랜드 전략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잠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돈협회에서는 양돈자조금사업을 통한 조사연구를 확대 실시하여 구체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수입육과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의 생산과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육단계 HACCP 확대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HACCP적용 가공장 뿐만 아니라 사육단계에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HACCP 적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양돈농가도 HACCP운용이 빠른 시일내에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속되는 축산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수 십년간 외쳐온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려오는 수입축산물에 국내 축산시장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항상 변화하듯 양돈 농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양돈장 경영에 임해야겠습니다. 또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조직화하고 직원들의 작업의욕을 고취시켜 양돈장의 위생수준을 더욱 강화시켜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뤄야하는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투철하게 매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양돈농가와 협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한국 양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양돈**